

변화의 주체는 우리 낙농가다 !

1. 서론

대내외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그만큼 위기는 우리 앞으로 성큼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예일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현 상황을 위기로 인식하고 있는가? 우리 모두가 반문 해봐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 속에 우리의 비전과 목표가 숨어 있기 때문이다.

이 글을 통해 우리 앞에 놓여진 낙농현안에 대해 인식하고, '낙농산업의 지속발전'이라는 공동목표를 위해 앞으로 우리 낙농가 모두가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

2. 본론

가. 한미FTA와 낙농제도 개혁

한미 FTA협상은 '쓰나미'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우리나라 농축산업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



권 이승 회장
한국낙농육우협회장

결과만을 보더라도 농업생산 2조~8조 8천억 감소, 낙농산업의 경우 2,042 억원으로 예측되고 있다. 지난해 농업 총생산액 36조원, 낙농산업 생산액 1조 5천억인 것에 비춰본다면, 참으로

어마어마한 수치다. 특히 최근 발표된 미국농무부 보고서에 따르면 무역자유화시 우리나라 원유가격은 47.6%, 원유생산은 14.8%나 감소할 것이라고 한다. 피해수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은 아니다. 자그마한 희망이라도 보인다면, 돌아갈 방법을 찾겠지만, 한미 FTA협상은 이전 다른 협상과는 질적 차원이 다른 협상이다.

이에 낙농육우협회는 준비되지 않은 한미 FTA 협상반대와 낙농의 특수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기본입장 하에 '한미 FTA저지 농축수산비상대책위'를 구성하여 한미 FTA저지 활동을 전개 중에 있다. 지난 7월 12일 서울시청 광장에서 개최된 '한미 FTA저지 농축수산인제2차 결의대회'에서는 폭우속에서도 3만 여명



한미 FTA저지 농축수산 제2차 결의대회 (07.12)

의 농축산인이 한미 FTA 저지를 위해 한목소리를 내었다. 앞으로도 한미 FTA를 반드시 저지시키기 위해 총력을 다해 나갈 것이다.

예측하거든 한미 FTA협상은 전초전에 불과하다. 정부에서는 2007년까지 최대 50개국과 FTA 체결을 추진한다고 한다. 특히 한-EU, 한-호주 등 낙농대국과의 협상이 줄줄이 예고되고 있다.

따라서 비단 FTA를 대비해서라도, 우유수급안정을 위한 전국단위 낙농제도 개혁은 우리 낙농가 앞에 놓여진 공동의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우리 낙농육우협회에서는 지난해 11월 자체시안을 발표하고 정부와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우유수급안정을 위한 전국단위 쿼터제 도입’이라는 큰 틀에서 합의 한 바 있으며, 참여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에 있다. 이제 우리의 공동목표는 명확해 졌다. 정부는 ‘전국단위 쿼터제’ 실현을 위한 참여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우리 낙농가에겐 공동의 목표를 위한 결단과 단결만이 필요한 때이다.

낙농제도개혁의 주체는 우리 낙농가인 것이다.

나. 우유소비확대의 중심축 - 낙농자조금 사업
낙농발전의 키워드는 전국단위 제도개편과 제도적인 우유소비 확대방안 마련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우유를 주로 소비하는 19세 이하의 젊은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우유 소비에 익숙하지 않은 노령인구의 점진적 증가 등과 같은 구조적인 문제점으로 우유소비 침체가 장기화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소비침체의 질곡을 벗어나기 위해 1999년부터 2005년까지 임의자조금을 조성하여 우유소비촉진을 위한 생산자들의 지구 노력을 꾸준히 진행해 왔으며, 임의자조금 조성의 한계 극복과 홍보기법의 다양화를 절실히 요구하는 낙농가의 의지가 모여져 의무자조금 사업이 출범하게 되었다. 학교급식 제도화 등 정책적인 방안 모색과

함께 의무자조금 사업의 내실화가 앞으로의 우유소비 확대와 나아가 낙농산업 발전의 성과를 좌우하게 될 것이다.

지난 7월 3일 현재 3억 6천만 원 조성과 거출률 98%로 의무자조금 사업의 첫 단추를 성공리에 끼웠다. 자조금관리위원회에서는 자조금 사업이 우유소비 홍보활동에 목적을 두

고 있는 만큼, 농가분들의 피같은 자조금을 한 푼이라도 헛되지 않게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마련하였다. 소비홍보사업으로는 우유소비 홍보 대국민 캠페인 사업, 소비자 연령 및 계층별 우유소비촉진사업, 소비자 및 영양관련단체를 통한 홍보사업, TV 등 매체홍보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소비홍보사업은 소비자들에게 직접 국산우유의 우수성을 알려 우유소비 촉진에 기여하고, 국민들의 건전한 식생활을 영위하는데 도움을 주며,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기본적인 영양상태 향상에 우유가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표를 둔 것이다.

또한 낙농자조금의 거출목적과 그 효과를 낙농가들에게 제대로 알림으로써, 낙농자조금 사업의 기반구축과 확대를 꾀하고, 농가 교육을 통한 사양기술 및 경영신기술을 전파하여



생산성 향상 및 목장경영능력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 농가들에게 교육 및 정보제공사업도 할 계획이다.

자조금의 필요성은 어느 축종보다 낙농가가 공감하고 있다고 확신한다. 더불어 자조금사업이 우리 낙농산업을 우리 스스로 지키기 위한 자구노력인 만큼 낙농자조금사업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고 싶다.

다. 낙농환경 대책

도시화 및 각종 환경규제로 인해 낙농산업을 비롯한 축산업의 입지가 날로 악화되고 있다. 특히 축산업을 오염산업으로 인식하고 있는 소비자들의 시각과 그로 인한 각종 민원발생은 축산업 발전의 암초로 작용하고 있다. 적법하게 축사를 증축하더라도 주민민원으로 인해 허가가 취소되는 사례들이 도시근교, 농촌 상관없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양분총량제와 가축분뇨 자원화 대책

이런 상황에서 2007년도에 도입예정인 양분총량제 역시 또 하나의 규제로 작용될 것으로 예상돼 크게 우려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양분발생량의 대부분을 화학비료가 차지하고 있기

<표 1> 낙농자조금 사업계획 총괄표

소비홍보사업	1.우유소비홍보대국민캠페인	3대가족소풍, 지역별홍보행사, 연령계층별 우유소비촉진, 찾아가는우유홍보
	2.청소년우유소비촉진	우유캠프, 단체급식메뉴보급사업, 1일 명예교사 활동
	3.언론매체및소비자?영양관련 단체를 통한 홍보사업	방송PPL, 기획기사홍보(언론)소비자 및 영양관련단체 활용홍보
	4.대중매체홍보	TV광고, 라디오광고
교육 및 정보제공사업	1.거출홍보	낙농가 거출홍보, 수납기관 설명회 농가 및 수납기관 방문홍보
	2.생산자교육	낙농지도자리더쉽교육, 낙농순회강습회, 목장형유가공기술교육 등
	3.실무자직무능력향상교육	실무자직무능력향상교육
	4.세미나	우유영양관련 세미나, 대외무역정책 세미나, 우유소비홍보관련 세미나
	5.목장환경개선사업	깨끗한 목장 가꾸기 운동
	6.생산자제도 및 정보제공	자조금공시및제도광고, 자조금 소식지 인터넷정보제공 등
조사연구사업	1.연구용역 및 조사연구	우유교육자료 개발, 낙농산업 정책 낙농유제품 관세체제 정비 백색시유 마케팅조사, 선진홍보기법
	2.자문위원회	마케팅 전문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때문에 낙농육우협회에서는 ‘선 대책 후 실시’를 요구하고 있으며, 특히 화학비료의 실질적인 저감대책과 경종농기와의 연계시스템 등 자원화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이런 요구사항들이 관철되기 위해 협회내 낙농환경대책위원회 구성하여 활동 중에 있다.

▶농지법개정

농지법 개정이 FTA문제와 함께 축산현안으로 부각되고있다. 모두에서 언급했듯이 도시

화, 환경규제, 주민민원 등으로 축산경영 여건이 날로 위축되고 있는 반면 농축산물 수입확대 및 유희농지 증대가 가속되고있어 현행 농지법의 축사규제 제한은 이런 시대 요구사항을 외면하고 있다. 물론 기본적으로 농지내 축사설치 제한 완화가 농지 내 축사난립을 야기시킨다는 반대여론을 잠재우고, 농지법 개정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수질오염, 악취 등에 대한 민원 해결과 농지내 축사난립 방지를 위한 대책도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목장 환경 개선 표준 매뉴얼

(Standard Manual for Environmental Improvement in Dairy Farms)



 한국낙농육우협회

목장환경개선표준매뉴얼

한국낙농육우협회에서는 축산관련단체협의 회와 연대하여 농지법 개정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나, 국회 상임위에서 이미 두 차례 심의 유보가 된 바가 있다. 농지법개정은 ‘축산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해결해야할 선결 과제이므로, 올 9월 정기국회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깨끗한 목장 가꾸기 운동

낙농 환경대책 마련과 함께 낙농환경 개선을 위해 우리 낙농가 스스로 실천해야 할 과제가 바로 ‘깨끗한 목장 가꾸기 운동’이다. 낙농육우협회에서는 깨끗한 목장 가꾸기 사업의 사업방향을 크게 농가 지도교육과 우수목장 발굴

및 보급에 초점을 맞추고 진행하고 있다. 이미 농가 지도교육을 위해 목장환경개선 표준 매뉴얼을 제작하여 전 농가에게 배부한바 있으며, 매월 셋째주 수요일을 ‘낙농환경 보호의 날’로 지정하여 낙우회별 방역 및 환경개선 활동을 지도하고 있다. 또한 협회 도지회를 통해 우수목장을 추천받아, 소비자?학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단에서 평가 및 우수농가를 선발할 계획이며 사례집을 발간하여 운동의 붐을 조성할 계획이다. 깨끗한 목장 가꾸기 운동은 ‘누가 먼저’가 아니라 ‘내가 먼저’라는 인식을 우리 낙농가 모두가 인식하고 실천해 나가야 할 것이다.

4. 결론

개방화 문제와 낙농제도개혁, 낙농자조금 사업, 낙농환경 문제 크게 세가지로 우리의 과제들을 되짚어 보았다. 물론 흑자는 이런 문제들이 과연 중요한 과제인가? 의문을 가질 수 있다고 사료되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인지해야 할 것은 위기를 위기라 인식하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과거의 답습뿐인 것이다. 희망찬 낙농산업의 미래를 기대한다면, 우리 낙농가 모두가 단합하고 결집하여 능동적으로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반드시 바꿔나가야 할 것이다. 변화의 주체는 바로 우리 낙농가인 것이다. 낙농육우인의 권익대변 단체인 협회로의 단합으로 어려운 난제를 극복해 나가보자!